

고밀도일수록 환기시스템이 완벽해야 한다

□ 정리/이 영오 기자



△우선 한국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방문목적과 초타임사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카몬윙거: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목적은 한국의

협력사와 협조체제 공조와 초타임사의 기자재를 설치한 농장, 고객들을 방문하여 한국양계시장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방문했습니다. 저희 초타임사는 최상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1952년에 설립되어 현

재 850명의 종업원과 전 세계 75개국에 대리점을 두어 세계 최대의 업체로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독창적인 제품개발과 초타임사 설립자가 지금까지 경영 일선에서 일관된 경영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케이지 선택에 있어, 급이, 환기, 계분처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케이지 선택기준을 나름대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카몬윙거: 자기나라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사의 타입, 급수시설, 계분처리, 지가의 부담, 케이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기자재 선택 기준이 되며 농

장여건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고 사후관리(A/S)에 대한 신뢰성 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초타임사는 이런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 시킬수 있도록 파란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케이지 원료에서 제작까지 일괄적인 체제를 갖추었으며, 탄력성을 생명으로 제작된다는 것이 초타임사의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급이시설에 있어서도 울트라플라우 시설을 채택하여 전체 계사의 급이형태가 균일하게 급여되도록 제작하였고, 급이 속도조절로 사료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계사내 온도 편차를 0.5℃로 조절할 수 있는 터보환기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밀도 사육 경향이 뚜렷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당 500cm² 이상 사육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키몬윙거 : 고밀도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계사환경이 필수적인 요인이 됩니다. 계사환경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환기문제라 여겨지는데 공기의 질, 기온, 풍향 등의 요인에 의해 좌우됨으로 이부문에 있어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최대관건입니다. 미국의 경우 환경, 제품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당 평균 바닥 면적이 310cm²~330cm²이 필요하며 갈색계의 경우 390cm²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좁은 면적에서 고밀도 사육이 가능한 것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환기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했기 때문이며 만약 계사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케이지를 설치하여 고밀도 사육 한다면 실패의 요인이 그만큼 증가한다고 봅니다.

△양계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은 고상식, 유럽은 직립식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두 유형이 동시에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양계농가들이 선택시 혼선이 야기되기도 하는데 두유형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키몬윙거 : 유럽은 계분을 외부로 누출 시키면 제제조치를 받게되며 생계분의 경우

자기 여건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발효시설이 없을 경우 당일에 매립해야 하는 등 환경공해규제가 엄격합니다.

또한 기존계사를 다시 개축 시에도 허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한된 공간에서 고밀도사육이 가능한 직립식 케이지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반면 시설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상식케이지는 구조가 단순하여 시설이 용이하며 시설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 사양가들이 고려해야할 점은 자기 농장의 지리적 요건과 환경적인 면 등을 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양계산업은 수년내 시장이 완전히 개방해야 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값싼 미국산 등 대수출국의

양계산물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양계산업의 생산성은 어떻습니까?

카몬윙거 : 양계산물의 생산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료비, 시설투자비, 인건비 등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양계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양질의 사료곡물 자원이 많고 둘째 규모의 경제 즉, 시설 자동화로 대형화된 농장을 적은 인력으로 아주싼 양계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의

양계농가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설령 수입개방이 된다 할지라도 수출국에서는 운송비, 관세장벽 등을 고려해야 함으로 그 범주속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제품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양계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몬윙거 : 한국의 양계산업은 시설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규모

도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초타임 케이지 경우 아직 큰 하자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양계농가에서도 환기시설의 방법, 사육수수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화된 기종을 비교하여 선택하기 보다는 자기여건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봅니다.

△인터뷰를 통하여 좋은 말씀을 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통역을 해주신 태을물산 신옥희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미등록 부화장 및 종계장 고발센터 안내

- **대 상 :** ○미등록 부화장 경영자
○미등록 종계장 경영자
○미검정 종계 유효기간 초과 종계 보유자
○불량종란 또는 불량초생추 생산·유통하는자
- **방 법 :** 서면 또는 전화(신분 보장)
- **조 치 :** ○접수후 사실확인 위법사실 확인되면 당국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
○결과 월간양계 및 양계관련 매체에 공표
- **접 수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전화 : (02) 588-7651, Fax : 588-7655